# 법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불교학과 불교사상은 시대를 흘러오면서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 반역의 역사이다. 특히 대승불교 불교학은 각양각색의 종파와 사상이 발전하면서 수행법 또한 다양하게 발전했다. 그 어떤 수행법이든 불교 진리[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금강경〉 23품에서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是法平等 無有高下)'고 했고, 〈능엄경〉에서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은 두 길이 없으나 방편 따라가는 길에는 여러 문이 있다(歸元性無二 方便有多門)'고 했다. 곧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똑같지만, 그 방법에는 여러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 종파인 조계종은 선(禪)을 표방하는 선종이지만 통불교적인 성향이다. 그러기에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참선·염불·간경·주력을 내세운다. 깨달음이라는 그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어느 누구라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는 방편적인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대승(大乘)이고, 일승(一乘) 사상이다.

중국은 당나라 말기부터 시작해 염불 정토사상이 발전하면서 현재까지 아미타 신앙이 보편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염불 정토보다는 선을 우위에 두었던 터라 염불을 낮은 근기로 보는 성향이었다. 필자가 출가하던 무렵 오롯이 승려는 출가하면 선방에 가야 하고, 선방 장판에 앉아야

**불교 진리 누구에게나 평등해**
**정진하려는 마음 있으면 참불자**
**어떤 수행법이든 인정·격려해야**

'중다운 중'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조선 중기 서산 대사 휴정(1520~1604)은 "사람의 근기가 각각 다르므로, 혹 어떤 이에게 타력(他力)이 필요하다면 염불·주력·참회·보시 등 다양한 수행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참선하는 수행만이 최고이고, 참선하는 스님만이 최고 수행자라는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이다.

근대의 큰스님 중 한 분인 수월(1855~1928) 스님은 천수다라니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또 중국의 허운(1840~1959) 스님도 〈지장경〉을 독송하는 와중에 삼매에 들었다.

이렇듯 경전 독송으로도 주력 수행으로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출·재가자 누구라도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간에 정진코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불자라고 본다. 어떤 법이든 진리 차원에서는 똑같다. 법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차별하고 있다. 곧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경전 공부든 염불이든 참선이든 간에 자신이 선택해 걷고 있는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타인도 그럴 것이다. 〈금강경〉에서 '법상(法相) 조차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선택해 공부하는 것만이 최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해 공부하는 것도 최상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물론 근자는 염불을 낮은 근기로 보지 않으며, 중생 구제 차원의 포교도 강조하는 시대이며, 마음을 편안케 하는 현대 명상도 날로 발전되는 시대이다. 그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법을 따르든 서로 인정해 주고, 격려하며, 보듬어 주어야 우리나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세상은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부른다. 또 '정상'이라는 말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를 교정하려 한다.

'정상화'란 말은 본래 1960년대 북유럽에서 장애인을 사회 속에 포함하기 위한 복지 개념으로 시작됐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 생각은 처음에는 평등을 향한 진전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처럼 돼야 한다'라는 또 다른 강요로 변질됐다. 이는 마치 중생 구제를 말하면서도 자기 수행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오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각각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른 삶을 산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존재의 인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상화라는 명제 아래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삶에 맞추려는 태도는 장애인의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고 하나의 모습으로 동일시하려는 집착이라 할 수 있다.

평등은 동일함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녔다고 했다. 그 불성은 몸의 장애나 인지 정도, 사회적 능력으로 나뉘지 않는다.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가 뚜렷이 드러난다.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비장애

**평등은 차이 인정에서 비롯**
**통합교육, 형식만 남은 포용**
**정상화 아닌 연기의 시선 要**

중심의 규범 틀 속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함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아져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장애 학생은 끊임없이 조율되고 교정된다. 이것은 존중의 교육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포용일 수도 있다.

불교의 자비적 측면에서 존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 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향해 끊임없이 "극복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깨달음은 결코 무언가를 '극복'하는 데 있지 않다. 고통을 밀어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 있다. 장애를 극복으로만 이해하는 사회는 장애인의 삶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한다. 그 삶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가까워질 때만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이는 무명(無明)의 또 다른 형태다.

진정한 포용은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삶이 다른 삶보다 더 '정상적'일 수 없다. 장애인의 삶은 결핍된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그 안에도 완전한 불성이 있고, 그 삶 또한 부처님 법의 한 모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화를 향한 노력보다 연기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차이를 병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의 실천을 배우는 것이 불교적 포용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같음'이 아니라 '함께함'의 평등을 배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장애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다양함과 깊이를 성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실천, 즉 고통을 나누고 함께 깨어나는 공동체적 깨달음이 가능할 것이다. '정상화'를 넘어서는 길은 바로 여기,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연으로 삼는 마음속에 있다.

社 說

## 종교 아닌 헌법 위에 서라

기독교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 차례나 불교계를 찾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정치할 땐 개인의 종교 신념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간 그의 발언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정치 지도자의 언행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들이다.

정치인은 특정 종교의 언어로 국가를 해석하거나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공당의 대표로서 입에 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불교계의 진정 어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성경 말씀'을 거론했다. 이는 그의 예방이 얼마나 진정성이 결여된 행보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분명히 선언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정신적 토대다. 정치가 종교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거나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퇴행한다. 그러한 퇴행을 막기 위해 헌법은 정치로부터 종교를, 종교로부터 정치를 분리해 놓았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모든 종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에게는 국민의 신뢰가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장동혁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보리수아래 창립 20돌에 부쳐

부처님의 일대기 관련 책을 읽다보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목도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승단 구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했다는 데 있다. 부처님은 장애인도 승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대표적 사례가 아나율과 주리반특가다. 정진 중 아나율 존자는 시력을 잃게 됐으나 지혜의 눈인 천안통을 열어 훗날 '천안제일'로 불리게 된다.

주리반특가는 우둔해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열심히 청소하며 부처님이 주신 게송을 외우던 주리반특가는 문득 깨달아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두 선지식의 이야기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중생이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대표하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보리수아래'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보리수아래는 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5년 창립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신행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척박한 장애인 포교 현장에서 전법의 등불이 2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보리수아래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컸다. 장애인 중 후천적 요인의 비율은 88%로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애인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불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무장애'는 사회적 트렌드가 된지 오래인 만큼 불교계 내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길 기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계 품서식 봉행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 11월 10일 월요일 11시
장소 :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